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일하는 복지' 실현

청장년층 위한 자활사업단 확대

남원시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변화에 따른 자활사업의 다변화 및 활성화를 위해 청장년층을 위한 자활사업단을 확대 운영하면서 일하는 복지실현에 한층 다가가고 있으며,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방문복지 서비스 확대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2021년 남원시의 일하는 복지 및 지원에 대해 알아본다.



착한가게 '쌈다김밥' 오픈

사회적농업 등 시장형사업단 운영 자활사업단 참여자에 성과급 지급

청년 채용 자활사업단 개발 목표 매머드·쌈다김밥 등 개점 운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활자산형성토록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저소득층 고용 인프라 구축 위해 자활기업에 기금 용자지원 등 나서



저소득층 영농 작업



착한가게 가입식

◇빈곤 탈출을 위한 일자리 제공

남원시는 올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5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현재의 근로능력을 유지하며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근로유지형사업 및 사회복지도우미에 29명(3,700만원), 민간유탁사업으로 추진기관 2개소 8개 자활근로사업단에 96명이 참여하도록 해 2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특히 사회적농업, 카페, 웰빙농류지 등의 시장형사업단을 운영한 결과 6억9,60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했다. 또한 자활사업단 참여자 51명에게 4,7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으며, 향후 사업단과 참여인원, 예산액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시켜 자활기업 창업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커피전문점 매머드



일하는 복지 실현 간담회

크린서비스 캐망돈, 자연에대과 등 총 5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함으로써 탈 빈곤을 위한 자활기업의 좋은 성공사례가 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올해도 저소득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88명이 신규 가입해 3억2,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자활사제관리를 하고 있다.

◇남원형 자활기금 운영으로 자립지원 다변화

남원시는 2000년부터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자활기금을 조성해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저소득층 용자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와 지원사업 확대를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보다 효과적인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지원하고자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올 한해 저소득층 고용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자활기업에 자활기금 7,000만원 용자지원 ▲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지급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교육 ▲자격증 취득장려금 지원 ▲자활동기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사업단 참여자 기능습득 지원 등 자활 참여자의 역량배양을 통한 탈수급 기반 조성

에 총 69억3,500만원을 지원했다.

◇나눔의 선순환에 앞장

남원지역자활센터는 지난해 베트남골목식당 1호점을 개점한 데 이어 올해 2호점 미태리 3호점 매머드 커피숍을 개점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9일 이 자활가게 3곳이 착한가게에 단체 가입해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함으로써 그동안 기부 받는 대상이던 자활 참여자들이 이제는 나눔의 주체가 되어 나눔을 실천하는 선순환을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 '우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 해 쌀국수 전문점에 이어 올해 3개의 파스타 및 피자전문점, 커피음료전문점,

분식전문점을 개점해 저소득 근로 청소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2020년 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6월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조환희 주민복지과장은 "시에서는 앞으로도 자활사업의 유형 다변화를 꾀하고 취약계층의 꿈을 실현하는 자활사업단 개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한 저소득층이 근무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활사업의 최종 목표인 '창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섬김을 우선하는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행복한 남원민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